

“전공 살렸을 뿐인데…”



스리랑카어 키보드 개발

KT 전남본부 신진화씨

“영어로만 e- 메일을 보내야 하는데 부모님은 영어를 몰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광주 외국인 노동자센터를 찾는 스리랑카 외국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문제다. 현재 윈도우 XP에서 지원하는 언어는 모두 101개, 하지만 스리랑카 인구(약 1천100만명) 4분의 3, 즉 70% 이상이 사용하는 싱할라이어(Sinhalese language)는 101개 지원 언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국어를 사용해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KT 전남본부 ‘IT 서포터즈’ 신진화(37)씨는 답답해하는 이들의 고민을 달랠 줄 알았다. 이 때문에 지난 14일 광산구 월계동 외국인 노동자센터를 김영권 본부장과 찾았을 때는 이들에게 ‘이스 러디(고마워요)’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다.

신씨는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스리랑카 외국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오히려 속스러웠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5월 이들의 어료장을 처음 들었다.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낯선 곳에서 고국 가족들에게 메일조차 보낼 수 없다는 말을 들으니 자신도 답답했다고 한다. 어떻게 싱할라이어를 표현할 수 있을까. 언어 전환과 관련된 자료를 뒤적이며 고민했다.

그러나 특정 자판을 누르면 해당되는 싱할라이어가 모니터에 써지는 프로그램, 이른바 ‘가상 키보드’를 만들어냈다. 또 키보드를 덮는 비닐 커버에 일일이 싱할라이어를 써서 붙였다. 외국인들이 자판을 보며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씨는 지난 14일 김영권 KT 전남본부장, IT 서포터즈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 2대, LCD 모니터 3대를 광산구 월계동 외국인 노동자센터에 전달했다.

신씨는 “‘전공’을 활용한 나눔 활동을 하는 것이 똑똑한 사회 공헌 활동 아니냐”면서 “앞으로도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역도산 제자’ 이노키 음반 낸다



일본 프로레슬링의 대부인 역도산 제자로 1970년대 알리와 이종격투기 대결을 벌여 유명한 안토니오 이노키(64)가 음반을 선보인다.

참의원 출신의 이노기는 농구국기관에서 새로 결성한 IGF의 첫 공식경기장을 29일 펼치기로 하는 등 아직도 일본 경투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

다음달 11일 발매하는 싱글앨범 ‘길(道)’은 자신의 은퇴 시험에서 읊었던 시 ‘길’에 곡을 붙여 만들었다.

안성기씨 ‘푸르메 나눔치과’에 1천만원 쾌척



영화배우 안성기씨가 장애인 전문 치료 병원인 ‘푸르메 나눔치과’에 의료기기 구입비용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푸르메재단측이 19일 밝혔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심준택씨 차남 상구(미국 변호사)씨 강정체(전남대 총장)·김명(광주교육대 교수)씨 차녀 승희(미국 코네티컷주 대학병원 의사)양 = 23일(토) 오후 1시 광주 신양파크호텔 예식장.

▲김천주(광주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전무이사)씨 장남 강현군 안동혁씨 장녀 미애양 = 23일(토) 오후 1시20분 경복궁웨딩컨벤션.

▲이희일씨 장남 창호군 강민원(광주시 환경자원과장)씨 장녀 지선양 = 23일(토) 오후 1시 애벌루션웨딩컨벤션 3층.

알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들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u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접수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장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문의 363-2240

▲호남해비리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

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접수 제공)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공통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사)국제질체협회 광주서부지

부 외국인 여성 위한 한글학교 운영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접수 제공). 한글 교육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요리 강습을 통한 건강 및 음식 문화 이해 등. 382-3004

▲유은학원 총동문회 제 2차 정기 이사회(회장 박석남)=22일(금) 오후 7시 삼목회당 3층. 361-2680

▲조대부고 20회 동창회 모임=22일(금) 오후 7시 화랑궁 식당. 223-7370

▲재광 목포 제일여고 9회 동창회 모임=22일(금) 오후 6시30분 낙지한마리와 수제비. 011-617-6695

▲광덕고 2회 동창회 총회=23일(토) 오후 6시 애벌루션웨딩홀. 017-601-1190

▲진흥고 제 3회 동창회(회장 조래길) 모임=23일(토) 오후 7시 상

록회관 4층. 016-603-6200

▲서강고 제 8회 동창회(회장 김용식) 모임=23일(토) 오후 5시 마스터스관광호텔 3층. 017-617-3985

▲광주 방림초교 총동문회 칭립총회=23일(토) 오후 2시 모교 강당. 019-601-1898

동창·동문회

▲창녕조씨 광주·전남 청년회 모임=21일(목) 오후 7시30분 광명해물탕. 010-6688-8983

향우회

▲재광 보성읍 향우회(회장 안명섭) 정기총회=25일(월) 오후 7시 미원회관. 226-4743

▲재광 영암군 미암면 향우회(회장 김재균) 모임=25일(월) 오후 7시 화석시대. 381-8788

모임

▲재광 순천중고 테니스모임=23



‘국제환경올림피아드’ 금상 광주외국인학교 김나연 양

“새만금 갓벌 캠프 참가 환경 중요성 깨달았어요”

‘지푸라기’를 이용해 연료를 만들어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까?

지난 10~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5회 국제환경탐구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차지한 광주외국인학교 9학년(중3 과정) 김나연(15·광주시 북구 흥문동)양의 출품작은 이처럼 조금은 엉뚱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김나연은 “지난해 교내 과학축제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담당 등 광주 인근 시골길을 지나다 들판에 버려진 벚꽃을 보고 범뜩 생각이 났다”며 “학교의 브록(Jordan W. Brock) 과학 선생님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생활한 김양은 “과학과 친해지기 위해 캠프를 많이 참가한 것이 과학을 좋아하게 된 동기”라고 말했다.

김양은 “한국 대회에선 과학과 학생도 많았고, 내나 이가 눈에 띠게 어려 위축됐었는데 오히려 국제 대회에서는 나보다 더 어린 학생들도 많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도전했으면 해요.”

“한국 대회에선 과학과 학생도 많았고, 내나 이가 눈에 띠게 어려 위축됐었는데 오히려 국제 대회에서는 나보다 더 어린 학생들도 많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도전했으면 해요.”

김양이 처음부터 과학이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던 것은 아니다.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일본과 미국 등을 오가며 생활한 김양은 “과학과 친해지기 위해 캠프를 많이 참가한 것이 과학을 좋아하게 된 동기”라고 말했다.

김양은 “한국 대회에선 과학과 학생도 많았고, 내나 이가 눈에 띠게 어려 위축됐었는데 오히려 국제 대회에서는 나보다 더 어린 학생들도 많아 마음이 편해졌어요.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도전했으면 해요.”

김나연(15·원쪽)양이 지도교사 블록씨와 출품작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나연 제공

지난 10~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5회 국제환경탐구 올림피아드’ 금상을 차지한 광주외국인학교 김나연(15·원쪽)양이 지도교사 블록씨와 출품작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나연 제공

지난 10~13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15회 국제환경탐구 올림피아드’ 금상을 차지한 광주외국인학교 김나연(15·원쪽)양이 지도교사 블록씨와 출품작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김나연 제공

“건설 외길 60년…正道 경영이 큰 힘”

‘건설의 날’ 은탑산업훈장

남화토건 최상옥 회장



“60여년을 한결같이 외길을 걸어온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재산입니다.”

‘성실’을 토대로 정도경영을 지속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20일 ‘제60주년 건설의 날’ 행사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최상옥(80) 남화토건 회장은 “엊그제 창업을 한 것 같은데 벌써 61주년이 됐다”며 “60년이 넘게 건설업체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임직원들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일제 강점기와 6·25, 군정시대 등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온 것이 회사경영의 방침이 됐다”며 “건설업체의 경우 수많은

업체들이 단기간에 걸쳐 흥망성쇠를 거듭한다는 점에서 분수에 맞는 정도경영을 펼치는데 주력해온 것이 오늘의 남화(토건)를 있게 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 건설사의 산증인으로 통한다. 지난 60년간 건설업체의 핵심인 윤리·투명경영을 몸소 실천함으로

써 남화토건을 광주·전남 등 지방 건설업체를 대표하는 회사로 키워냈다.

화순에서 태어난 최 회장은 14세에 인장포(도장집) 견습공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후 목수로서 건축일을 배우다가 해방이 되던 해 18세 나이로 남화토건을 설립해 지방을 대표하는 건설인으로 우뚝 섰다. 남화토건은 지난 1946년 창업해 올해로 창립 61년을 맞았으며, 현대, 동방, 삼부 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4대 건설업체로 꼽힌다.

최 회장은 “60년간 기업을 경영하면서 고수하고 있는 방침은 도덕과 양심 내에서 이윤추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각종 편법과 불법을 배제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영한 뒤 그 이윤은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적절하게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14년째 ‘국가 유공자’ 집수리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14년째 ‘국가유공자 집 고쳐주기’ 사업을 전개해 화제다.

19일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광주지방방문청이 추천한 4가구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66가구에 달하는 주택을 개·보수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거여건改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5개국 94개 팀이 참가했다. 김양은 비롯한 제주과학고 학생 2명이 이번 대회에서 금상을, 의정부과학고와 인천과학고 학생이 은상을, 민족사관고 학생이 동상을 각각 받아 한국 참가 학생 9명이 전원 입상하는 결과를 얻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야후 새 CEO에 창업자 제리